

광주 문예회관 예술감독 절반 '공식'

8개 광주시립예술단 중
국악관현악단·소년소녀합창단
극단·오페라단 예술감독 없어
단체 운영·작품 제작에 우려
문예회관 안일한 대처가 더 문제

광주 공연 예술의 중심인 광주시립예술단체의 예술감독(상임지휘자) 절반이 공식 상태에서 제대로 된 단체 운영과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이 이뤄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예술단 운영 주체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은 비어있는 차기 예술감독 선정과 관련한 어떤 일정도 진행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9일 문예회관에 따르면 8개 광주시립예술단 가운데 현재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등 4개 예술감독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전임 상임지휘자들이 재임중에 실패하면서 지난 1월 13일 이후 공석이다. 상임 예술감독이 장기간 공석인 극단과 오페라단의 경우 4년여 동안 작품 중심 '예술감독 초빙제' 형태로 운영돼왔지만 아직까지도 상임과 초빙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페라단은 지난 2019년부터, 극단은 2020년부터 상임예술감독이 없는 상태다.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 수립과 작품 제작 등 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올해 공연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제 2의 개관을 앞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해야 할 상황이다.

단원과 달리 예술감독에게는 계약 만료 전에 공지가 해야 한다는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대전과 대구 등 타 광역시 예술단체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구두 혹은 공문으로 임기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어 예술단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문예회관의 경우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게 이를 전야 공문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회관측은 "며칠 전부터 언질을 줬다"고 말했다. 당사자는 "회관으로부터 반복해서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뿐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의 계약 만료와 더불어 단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격리조치된 가정지



한국 구호대 튀르키예 어린이 구조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일대에서 한국인구호대(KDRT) 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던 어린이를 구조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도자, 이달 중 계약이 만료되는 운영실장까지 부재하게 되면서 3월 18일 정기공연을 앞두고 제대로 된 연습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문예회관은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올해 광주시립예술단 신규 비상임단원 공모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나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각각 3년, 4년 동안 상임 예술감독이 아닌 '예술감독 초빙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페라단과 극단도 이제는 정확한 운영 체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 작품마다 외부에서 연출가를 캐스팅하는 방식의 초빙제는 다양한 연출가들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주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작품에 지역성을 가미하기 어렵고 레퍼토리의 견고함과 더불어 상임 감독에 비해 완성도

있는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덜하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단체의 총 책임자가 없다는 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로 꼽힌다. 3~4년간 운영한 경험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상임 예술감독제와 초빙감독제 중 정확한 방침을 정해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당분간 오페라단과 극단은 예술감독 초빙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이 외에 공식으로 남아있는 예술감독은 비상임단원 채용 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공모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석원 교향악단 지휘자의 임기는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김진재 합창단 지휘자는 7월까지다. 또 김규형 장극단 예술감독과 박경숙 발레단 예술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알립니다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됩니다.

전국 대표 지역인문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될 이번 박람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각 시도 출향도민회 등이 대거 참여, 고향사랑기부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들에게 전

달하는 답례품을 대거 선보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지역 제품 소비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점도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답례품으로 나온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번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향에 기부해 혜택 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마련된 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
- 일 시 : 2023년 5월19-21일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
- 주 최 :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光州日報社 · 한국지방신문협회

北 열병식, 화성-17형에 고체 ICBM

장거리능력 과시 ... 전술핵운용부대 언급 대남 전력도 등장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장거리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무력시위 수준을 한층 높였다.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열병식 사진을 보면 최신 ICBM 화성-17형이 무더기로 동원됐고, 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도 식별됐다.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급의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고 추정되는 5연장 이동식 발사대(TEL), 4연장 초대형 방사포, 240mm급으로 평가되는 방사포, 152mm 자주포, 제식 명칭이 파악되지 않는 신형 전자 등도 나타났다.

이 가운데 ICBM급 신형 미사일이 가장 주목된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ICBM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105번째 생일(태양절) 열병식 때 원형 발사관에 실린 ICBM급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시 미사일을 실은 TEL은 8축이었고 이번에는 9축으로 늘어나 6년 전 미사일보다 길이가 길어졌음을 말해줬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15일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할 당시 외부에 노출된 로켓 모터보다는 직경이 더 커진 모습이다. 이에 당시 실험은 ICBM보다 소형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KN-23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했고, 이번 미사일은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TEL에서 발사관 직접 장치가 식별돼 실물일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령실은 9일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을 과시한 데 대해 "당국에서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 해보니... > 6면

북스 - '조선의 책' 39가지 길 이야기 > 14-15면

미국 언론 "WBC B조 이정후를 주목하라"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eman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성서대로 104 (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과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 본 차량은 표준모드에 의한 결과로 도색, 옵션 포함, 차량 무게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이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